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무심 속의 심지에 불을 당겨라!

우리가 대의적으로 따져볼 때는 항상 한마음 도리로서 돌아가지만, 너 나가 있듯이 여기 오늘 처음 오셔서 듣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기초적인 문제,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서는 제일 처음에 사성제(四聖諦)를 설했습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 자기가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만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자유자재권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과로 인해서 문득진 여러 분 속에 든 의식, 모습, 생명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高)됨어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하다못해 지렁이도 어떠한 생명이든 다 고입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면서 울며 쓰라림을 당하면서 짓밟히고 일어서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째, 고(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만이 멸(滅)하게끔 할 수 있고 또는 착(著)이 없게 할 수 있는냐는 얘깁니다. 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고 하나를 없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고를 없애는 도리를 일러드린 겁니다. 고만 없애면 집도 없어지고, 멸도 없어지고, 도라는 언어도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신통이 있다. 오신통 가운데 숙명통이 컴퓨터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거기에서 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재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인과, 유전 또는 영계, 세간 업보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입력된 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팔자운명 타령 하지 말고 거기에서 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입력을 다시 시키는 반면에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모두 무너집니다. 지옥고도 무너지고 업보, 유전, 영계에 끈달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반면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데다 놓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이론으로 달달달달 외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백 번을 외우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날더러 모든 것을 체제 있고 일관성 있게 설법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죽은 설법과 같습니다. 체제가 없으면서도 체제가 역력하게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 나오는 거든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든 둘이 아니게 나오는 그 자체는 본래 공(空)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둘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색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고정된 게 없으니 색과 공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밝은 심안의 심지에 불을 당길 수가 있고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니까, 그것은 내가 변할 수가 없지.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거는 진짜 부모한테서 자기는 물러서서 다른 부모를 찾았다고 애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은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신통을 비유한 팩시밀리나 천체 무전통신기나 또는 탐지기가 망원경이나 숙명통 컴퓨터나 레이더망에서 지금 오고 가는 걸 다 확정하듯이 그렇게 모두 하고 있는 누전통까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거를 몽땅 한데 합쳐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잘못된 거는 거기서 다시금 잡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자기라는 게 없이, 공해서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를 몽땅 거기다 놓

고 작업을 한다면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기,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간단만 바로 그제고 그를 녹이는 작업입니다.

그를 녹이다보니까 착도 없어져 ‘그것이 누구 탓이나? 내 탓이지.’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지 어찌 몸이 편안하게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착도 다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고 할 말만 하고 묵묵히 걸어가 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법전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던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평발이죠. 무겁게 평등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말 한 마디가 온 천하 법계에 두루하니 그게 법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 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강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백지부터 갖다놔야, 종이부터 갖다놔야 연필을 들 수 있듯이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바탕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바탕이 지수화풍의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광역 전력

업만 해라 이런 겁니다.

옛날에 무착 대사(無着大師)가, 그것도 저 차악을 있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쟁 치(爭) 자를 써서 차악산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거기로 절터를 보려고 갔다가 쟁이 앞을 낚았는데 큰 구렁이가 앞을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니깐 그냥 활로 쏘서 떨어뜨려 죽였거든요. 앞을 살렸으나 그 구렁이는 죽었죠. 그런데 저녁 나절이 됐는데 무착 대사가 허룻밤 새겠다고 하니까, 하얏게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들어오십시오.’ 하더라입니다. 그대 들어가니까 밤상을 차려 왔는데 짓가락 한 짝만 놔뒀습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은 불그릇 국그릇에다가 탁 손을 넣어가지곤 밥을 갖다가 그냥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내 낭군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는데...’ 정히 그렇다만...’ 했었습니다. 그 짓가락 한 짝 놓은 거하고 손으로 집어 먹은 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히 그렇다만’ 했을까요. ‘정히 그렇다만, 내가 당신을 감고 있는 동안에 종이 울리던대 내가 당신을 풀어주고, 내가 죽었으니 나까지 마저 거두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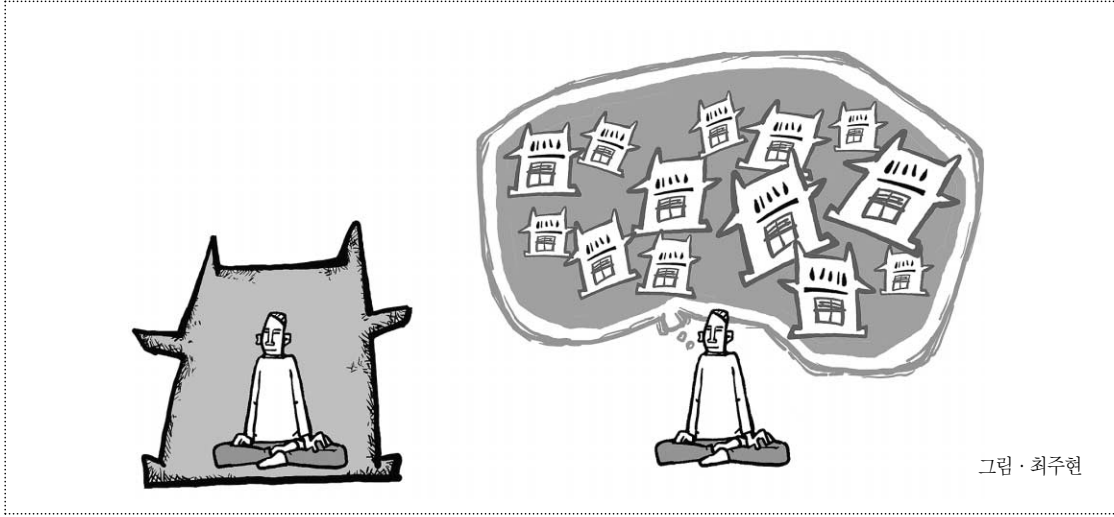


그림 · 최추원

## 팔자운명 타령 말고 거기다가 놓으세요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재료로 갖추어져 있으니 그 오신통은 바로 법바퀴를 굴려서 불바퀴도 되고, 불바퀴도 되니 그거를 굴려서 자유인이 되라이 소리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야심경이든지 뭐든지 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그 법(法)도 없니라. 그 법 안에 그 뜻도 없니라.” 이랬을 때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금강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렇게 말씀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보살은 이름해서 보살이니라. 그런데 내가 건졌다. 내가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지겠다.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살 될 자격이,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달달달 외워서 강의의를 해주는 것도,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자체의 이름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제일 첫머리의 고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저절로 도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도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도져야... 그러면 또 이 몸을 벗고서 공부할 할래도 그 타령이 그 타령이예요. 도무늬예요. 그러나 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다음에 나와도 두껍만 열면 나오게끔요. 아머십니까? 트릿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부는 틀림없이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죽을 때에 같이 가질 수도 없고, 통 풀릴 수도 없듯이 모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원히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되겠기에 사성제의 첫머리의 고만어리를 녹이는 그 작

시고, 만약에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원수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한 것이 말입니다. 짓가락 한 짝만 놔는데 그분은 ‘왜 짓가락 한 짝을 갖다놔느냐. 왜 송가락은 안 놔느냐. 송가락 좀 주십시오.’ 이게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물을 탁 죽여서 그걸 집어 자랐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 아! 그냥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딱 감겨본요. 그래 갖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종이 세 번이 울리더라입니다. 울리니깐 풀 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나까지 마저 거두어주소서.’ 하고선 그냥 풀어주면서 아예 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구렁이는 몸이 가벼웠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쟁이 말입니다. 날아갔다가 와서 ‘땡! 치고선 또 날아갔다 와서 땡! 치고 그러느라고 코가 아주 뭉그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단 말입니다. 평하고 구렁이하고 모두 세 개를 갖다 한 구렁이에다가 막 물어려고 하니가 웬 스님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처님의 자비로서 일을 살리느라 그랬지만 어떻게 생명 셋을 다 죽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착 스님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었네.’ 하고요. 그 소릴 들던 스님은 ‘아하! 이 요리 맛이 이렇게, 탕 맛이 이렇게 좋은 줄은 난 미처 몰랐네.’ 하면서 꿀꿀 웃고 돌아서서 가거든요. 멋진 거 아니까요? 짓가락 한 짝 놔는데 손을 담겨 먹었고, 셋을 다 한데 합쳐서 했는데 ‘그거 알 살리겠다고 세 생명을 다 죽이고 자비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니까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네.’ 하는 소리를 하니, 그쪽 사람도 멋져요. ‘탕 맛이 이렇게 좋은 줄이야 내가 알았네.’ 하면서 무릎을 치고 꿀꿀 웃고 돌아서서 가더라 이겁니다.

을 감은 사람을 풀고 갈 때는 둘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 지금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인과에 대해서 또 한 토막의 얘기를 하죠. 춘천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어느 분이 참 극난히 돈을 벌어서 잘짜게지고 집을 짓게 되어서 집터를 보러 다녔습니다. 집터를 보니까 참 좋은 데가 있어서 터를 뉘는데 아, 구렁이 구렁이 그냥 몇 구렁이가 전부 뱀 소굴이더라입니다. 그대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구렁이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대 그렇게 하고 다 치우고선 집을 거기다 지었습니까.

그리고는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병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도 병이 들고 손주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붓고 배가 부르고 점점 쪼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어 어디 취직을 할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됩니까? 또 자신은 진급도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딱 죽게 되는데 그냥 뱀 새끼들이 꾸역꾸역 그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또 갖다가 기름을 끼얹고 그거 화장을 시켰지 어떡합니까? 너무 징그러우니까. 화장을 시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하루 이틀 사이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자기 신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한 이삼 년 갔는데 산소에 가보면 구렁이 송송송 뿔뿔이더라. 뽀만 아니라 어느 때는 집 마당에도. 울타리에도 뱀이 쳐 걸쳐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도인이라는 스님을 만날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도인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던지 그 해 일년을 그렇게 꼭 물을 떠놓고 향을 피워놓고 정성을 들였더니 아, 샷장 쓴 허름하게 입은 스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스님을 붙들고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니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산소에도 있고 지금 집터에도 뱀 소굴이 그렇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뼈 마디마디까지도 전부 뱀이 돼버렸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느냐?” 하시더라고요. “어찌 안 들겠습니까?” 하니 까 그 스님이 군데군데 땅을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왜 병이리 가두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땅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예전에는 겨가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겨가 있으니까, 겹물을 피워놓고, 하얀 죽을 큰 함자박에다가 집터에도 세 그릇, 산소에도 세 그릇 갖다놓고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해놓는다면 당신을 살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 산소 구멍 뿔뿔이 데로 그냥 수없이 나오더니 집에서는 기둥 밑에서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수없이 나오니까 그 죽을 잔뜩 먹고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기어서 그러도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냥 타서 그 겹데기는 영 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버지의 영 혼을 건졌다고 하시면서, 그러고 나니 그 집안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불타가 되고 그 식구는 전부 슬러로서 입산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묘한 도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부모를 위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떡하면 살상이 되지 않나를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할 때는 그 토끼도 내 몸이요. 토끼의 생명도 내 생명이요. 토끼의 그 마음도 내 마음이나, 바로 그 토끼를 죽이는 순간 죽인 게 아니라 자비라 이겁니다. 토끼는 바로 나로 인도환생이 됐단 말입니다.

토끼를 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으로서 인도환생이 됐기 때문에 탕 요리를 한 거죠. 탕 요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약으로라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요리도 된 거죠. 영혼을 요리해서 그 겹데기를 벗겨주고, 토끼라는 겹데기를 벗겨주어서 인도환생을 시킨 거죠.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들여놔도 들여놔도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거를 몽땅 내서 천도를 시켜도 내간 사이가 없다 이거죠.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깨우치는 도리에 거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전부, 행이 전부도 아닌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한 토막의 인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옛날 전설의 고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간으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만이 아머, 그런 데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 떨어지지 않으면 그 해야 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지도 말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지도 말고 ‘죽으면 어찌나!’ 하지도 말고 ‘살아야 하겠다.’ 하지도 말고 몽땅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자기를 믿고 놓고 여기서 해결하라 이거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세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상대도 없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나쁜 거 좋은 게 내 앞에 닥치니까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겁니다. 좋은 것도 내 탓, 언짢은 것도 내 탓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원망이나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게 그렇게 나간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자까지 붙어서 여러분한테 공덕이 될 겁니다.

또 한 토막 얘기할까요. 이거는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의 얘깁니다. 어느 수좌가 와서 그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가 둘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둘이지.”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스님이 와서 또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니죠?” 하니가 “그렇지, 둘이 아니지.” 그러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더러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네 둘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둘이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이라고 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한 이삼 년 갔는데 산소에 가보면 구렁이 송송송 뿔뿔이더라고요. 뽀만 아니라 어느 때는 집 마당에도. 울타리에도 뱀이 쳐 걸쳐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30면으로 계속

